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요즈음 부쩍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만의 매뉴얼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인성이 좋고 능숙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선발시험은 채점의 편의를 위해 사지선다형 내지 오지선다형 출제를 하니 능력과 인격과 지혜를 가름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현재만 못한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더구나 기계명예에만 의지하고 물질만능의 풍조, 실용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생각하

과거시험 답안지에 담긴 국가경영의 지혜

는 교육, 이상과 소신을 물어보는 시험은 뒷전으로 밀리고 암기를 통해 찍어내는 시험에만 익숙해졌다.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되었던(958년) 과거제는 조선시대에 확대되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고 다듬어서 최고 권위의 인재 선발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본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던 과거제는 자연스럽게 신분 이동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공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고양시킴으로써 지식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후대 역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공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기본 자질은 물론 국가운영의 헌안과 고충을 위한 해답과 지혜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재 선발책이었음은 분명하다.

과거시험 답안지를 보면 답안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임금이 출제해 문제를 술직함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한 예로 조선왕조 제11대 임금 중종(1488~1544)은 1515년 과거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다. “내가 부족한 덕으로 다스린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라의 기강과 법도

가 세워지지 않으니 요순시대 정치에 이르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대책을 논하라.”

이 질문에 조광조는 거침없이 그의 소신을 장문의 답안지에 피력하였다. 첫째, 임금은 하늘의 이치로 사람을 인도하고 감화시켜야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임금이 하늘이라면 신하는 사계절이라 할 수 있는데 신하들을 잘 활용하여 조화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명도(明道)와 근독(謹獨)인데 항상 도를 밝히는 데 전념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삼가며 도리를 지켜야 한다. 조광조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답안을 썼다며 비장의 각오를 피력했다.

젊은 유생들은 이처럼 생각이 참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념을 가지고 공부했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열정을 다해 답안을 작성하였다. 문무병용의 방안을 제시한 정몽주, 오계(五峯)이라는 제목으로 인재를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답안을 낸 정약용, 세균 경영을 통해 재정을 국가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박세당 등이 작성한 답안지, 즉 시권(試券)에는 영혼이 있어 감동이 느껴진다.

당시 임금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시제는 나라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인재 발굴, 세금 제도 등 사회경제적 정치의 효율적 운영, 도적 방지 등 사회 안정망의 강화, 신하와 백성들과의 화합, 왕도 정치의 실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를 총망라하여 시대정신에 따라 다양하였다. 과거시험을 통하여 임금이 신하가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국가경영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었다.

지금의 대학입시 또는 국가고시에 식견과 경륜을 묻는 항목이 없는 것은 전통의 단절이다. 우리는 늘 온고지신을 외치지만 그것의 구체적 실천과 적용에는 소홀한 편이다. 현행 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높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때로 그 대안은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전통 속에 그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권을 소재로 하는 전시를 통해 양질의 한국적 가치를 발굴하고 또 알리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칼럼

제 때 키 크기



신 준혁 수원천연한방병원 병원장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낮은 경우는 많지 않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뇌하수체 질환이나 갑상선질환이 발생한 경우같이 실질적인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직접적인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판의 상태이다. 성장판이란 각 뼈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연골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세포가 자라면서 뼈의 성장이 이뤄진다.

성장판은 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보통 남아 16~17세, 여아 14~15세)에 닫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음모가 난 후 3년 이내, 여아의 경우 초경 후 2년 이내에 성장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 세대에는 영양이나 기타 문제로 성적 발달이 늦은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성적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아들의 경우 머리에서 체취가 나기 시작하면 성적발달이 시작되고, 여아들의 경우 첫 무투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2년 내에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키의 분위도가 30% 이하인 경우, 1년에 3cm 미만의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는 저성장 패턴이므로 아이의 상태에 대해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 9세 전에 과도한 성 발달을 보인다면 성조숙증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흔히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 영양, 수면, 운동, 환경 등 5가지가 있다. 저성장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다. 유전적인 부분은 꼭 부모 키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계 내의 형질에서 유전이 되므로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

5대 영양소는 인체에 있어서 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위주도 식단을 구성하고 칼슘섭취를 위해 신선한 유제품과 녹색 채소 식단을 꾸미면 좋다. 비타민 D 섭취와 야외활동을 통한 햇볠획출도 좋다.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발히 분비가 되는 데 잠을 늦게 자거나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으니 올바른 수면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뼈에 수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영, 줄넘기, 농구, 달리기, 산책 등은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으로 유명하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활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게 좋다.

요즘 문제가 되는 소아 비만의 경우도 키 성장에 방해가 된다. 비만의 경우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2차 성장이 빨리 나타나게 하며, 운동 부족 등의 문제가 생겨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성장은 한두 달 사이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꾸준한 영양관리와 적정 시간의 수면, 꾸준한 운동 등이 충족될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모님들의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 원인데도 1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연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례들인데 성실한 납세자들과 ‘우리 지갑’ 근로자들은 또다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복지 재정 부담지급 금액은 지난해에만 4400억 원이 넘었다.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360개 가운데 선별한 91개에 한정된 표본조사라고 하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어느 정도일지 가능하기도 어렵다.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면, 또한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점검한다

社說

‘저비용 고효율’ 살림살이는 U대회처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역대 국제대회 사상 가장 ‘저비용 고효율’로 치른 성공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고쳐 쓰고, 빌려 쓰고, 다시 쓰면서 무려 2000억 원을 절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재정 문제로 걱정하는 많은 도시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윤장현 U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소박하지만 정상 가득한 대회를 지르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광주는 ‘과잉투자-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끊고 외형보다는 실속 있는 대회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댔다. 정부가 승인한 8169억 원 가운데 6172억 원만 쓰고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다.

조직위는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선수촌을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도시 재생 방식’으로 해결했다. 수영장 등 4개 경기장을 제외한 65개 시설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했고, 부족한 시설은

광주를 고집하지 않고 전남·북과 충북의 도움을 받는 지혜를 발휘했다.

개·폐회식 비용도 2013년 러시아 카잔대회의 12분의 1, 지난해 인천아시안 게임의 3분의 1 정도인 101억 원밖에 들이지 않아 세계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선수대기실과 휴게실로 몽골 전막을 활용했으며, 경기장엔 점의자를 놓아 관중석을 늘렸다. 시상대와 메달 받침대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무상으로 빌려 왔고, 꽃 세레모니를 없애 8억 원을 절감했다.

보통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 가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광주U대회는 2000억 원을 절약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의 전례를 만들었다. 바퀴 말하면 광주 시민들이 세금을 덜 부담해도 되도록 내실 있는 대회를 치렀다는 이야기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든 자치단체가 ‘혈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껴 써야 한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복지예산 줄줄 새는데 예산타령 했더니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 원인데도 1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연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례들인데 성실한 납세자들과 ‘우리 지갑’ 근로자들은 또다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복지 재정 부담지급 금액은 지난해에만 4400억 원이 넘었다.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360개 가운데 선별한 91개에 한정된 표본조사라고 하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어느 정도일지 가능하기도 어렵다.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면, 또한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점검한다

면, 복지 재정 누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 합동점검단으로 각 부처와 기관들의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어찌 이 같은 누수가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이 만연하는 원인 은 치밀하지 못한 행정 때문일 것이다. 신성한 사람들은 대상자인지 철저히 점검도 하지 않고 지급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그런 주먹구구식 업무 행태 때문일 것이다.

재정 누수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해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들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혈세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안전한 여름나기 ‘바다로 캠프’



정 봉훈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지원과장·총경

7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원한 바다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름 바다’ 하면 길게 뻗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하얗게 넘실대는 파도를 가르며 수영을 하거나 모터보트를 타는 모습이 떠오른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름휴가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바다에서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지만, 지난 세월

호 사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바다란 알지 못하면 한없이 무서운 포세이돈이 될 것이고, 잘 알고 대처할 수 없다면 많은 이로움을 주는 자연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체험 ‘바다로 캠프’를 추천하고 싶다. ‘바다로 캠프’가 낯선 이름이라고 느끼지 모르겠다. 이 캠프는 해양종합훈련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3년 11월 11일 여수에 새롭게 터를 잡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일반 국민과 함께 해양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발한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이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씩씩하게 뛰어놀고 바다를 향한 개척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해양 챌린지 코스’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

고는 겪으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바다는 의미가 없다는 게 널리 알려졌기에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해양에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바다로 캠프’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캠프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5m 슬라이딩(또는 다이빙) 탈출, 수중 체온보호,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그룹수영, 생존을 위한 구명뗏목 탑승, 전복·침몰 중 인 선박모형에서의 탈출 등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쳐 초·중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바다로 캠프’를 시범 운영했다. 또, 체험학생 대상 94%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력, 올 4월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다로 캠프’란 이름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보유한 4200t급 훈련함(해경에

서는 두 번째로 큰 함정)과 동일한 이름으로, ‘바다로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바다에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별’이란 뜻을 담고 있다.

물론, ‘바다로 캠프’에 한 번 참가했다고 해서 모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질병에 대비해 예방주사를 맞듯이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바다로 캠프’라는 예방백신을 맞도록 하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아들, 딸,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다는 지구에 생명을 주었고 앞으로 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자연이다. 바다를 무서워하지 말자. 바다를 알면 드넓은 바다를 우리 품에 안을 수 있다. ‘바다로 캠프’를 통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안전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꿈 꿀 수 있기를 바란다.

無 等 鼓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 성향이 강해진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은 물론 동성애마저 터부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동성애 하면 우선 유럽이나 미국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의 역사는 상당히 깊다. 언제부터 동성애가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학자들은 화랑에 대한 낭도들의 존경심이 연모로 표현되는 내용이 신라의 **웅양(龍陽)과 대식(對食)**에 나타난다는 것을 들어, 신라시대에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어느 정도 용인됐으리라 추측한다. 기록을 토대로 하면 동성애자가 분명한 최초의 임금은 고려 7대 임금 목종이다. 목종은 권력에서 밀려난 뒤 남색으로 스킨레스를 끌고 했다고 한다. 동성애가 유행한 것은 고려 말기였다. 원나라 지배에 따른 중국 풍속의 영향이 컸고, 왕들은 국가 상실에 따른 상심으로 원나라 왕실 여자를 멀리하는 대신 남색을 가까이했던 것이 동성애 유행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고려 26대 왕인 충선왕은 원에 의해 퇴

위된 채 원으로 압송된 뒤 원종과 ‘웅양’(龍陽)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웅양이란 남성 사이의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 전국시대 위왕이 총애했던 신하를 웅양군(龍陽君)이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31대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청년 군위대를 만들어 그들과 동성애를 즐겼다. 하지만 이를 만류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을 보면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했고 심지어 형벌까지 가했다. 하지만 궁녀 사이의 동성애는 끊이지 않았다. 궁녀들은 왕을 기다리다 지쳐 ‘대식’(對食)을 했다. 대식은 궁녀들끼리의 동성애를 가리킨다. 대식질이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궁녀들의 동성애를 막지는 못했다. 연호인 동성 케를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동성결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양성의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법적 허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희송 사회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